

KIA, 추락의 2025년... 그래도 오선우는 건졌다



데뷔 6년만에 풀타임...120경기 뛰며 18개 홈런
“‘대선배’ 최형우처럼 관리 잘해 꾸준한 선수될 것”

‘버티기’ 중인 KIA 타이거즈 오선우가 최형우를 통해 ‘주전’을 배운다.

KIA의 2025시즌은 실패로 끝났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1위에서 8위로 추락했고, 결과 만큼 과정도 좋지 못했다. 그래도 팬들을 웃게한 선수들은 있었다.

오선우의 재발견은 올 시즌 KIA의 수확 중 하나다. 남다른 타격 실력으로 신인 때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자리를 잡지 못했던 오선우는 올 시즌 4월 12일 1군에 콜업된 뒤 굳게 엔트리를 지키면서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선우는 2019시즌 27경기 출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6시즌 131경기, 184타석에 그쳤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29일까지 120경기에 나와 458타석을 소화하고 있다.

앞선 6시즌 동안 1차례 담장을 넘기는 데 그쳤던 오선우는 29일까지 18개의 홈런도 날렸다.

오선우는 “많은 것을 경험했다. 전반기에 잘 해보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보기도 했다”면서 길었던 시

즌을 이야기했다.

1군 무대에서 마음껏 뛰어봤지만 첫 풀타임 시즌을 보내면서 체력적인 어려움도 느끼고, 프로의 높은 벽도 실감했다.

다리를 들고 타격을 했던 오선우는 체력 부담이 더해지면서 폼에 변화를 주면서 짧은 스윙으로 타격을 하기도 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후반기 수비 실수를 하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 기계가 아니니까 다리가 안 움직여진다”면서 웃은 오선우는 실수를 통해서도 배웠다.

오선우는 “2군에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괜히 주전이 주전이 아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전으로 뛰면서 결과도 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주전 선수의 책임감과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느낀 오선우에게 최형우는 특별한 ‘교과서’다. 최형우는 리그를 대표하는 레전드이자 ‘꾸준함’의 대명사다. 최형우의 준비 과정과 경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 오선우는 질문을 통해 대선배의 노

하우도 배웠다.

오선우는 “올 시즌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타격폼도 하나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힘도 떨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우고 있다. 형우 선배님도 다리를 틀 때도 있고 하셔서 여쭙봤다”며 “배운 것을 연습하고, 시합 때 하니까 됐다. 지금 배운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다. 내년에도 기회를 잡아서 경기에 나가게 된다면 힘든 시기가 왔을 때 더 빨리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배님도 처음에는 2할7푼을 치셨다고 했다. 1년 경험을 하고, 안 됐던 걸 보완하면서 3할을 치셨다고 했다. 3할을 치면 20대 초반부터 뛰고 있지 않았겠냐면서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다”며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내년을 시작하기보다는 안 좋을 때 기억을 가지고, 안 좋을 때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걸 알아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오선우는 좋았던 순간은 추억으로 남기고 좋지 않았던 순간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시즌을 마무리하고 있다. 모든 경험이 수확이었다고 말하는 오선우가 최형우의 조언을 새기면서 2025시즌 결승선을 향해 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신공의 도시’ 광주가 다시 뜨거워진다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

한국양궁대회, 오늘~3일 개최
김우진·김제덕·안산·임시현 등
국가대표·차세대 유망주 총출동
슈팅 로봇·국가대표 대결 행사도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광주에서 열린다. 국내 정상급 궁사들이 총출동해 금빛 대결을 펼친다.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2016년 창설돼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국제대회 기준으로 운영되며, 역대 최대 상금이 걸렸다.

국가대표 1군 선수들은 물론 차세대 유망주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대회 예선은 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본선은 2~3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지난 12일 끝난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 대회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활시위를 당겼던 ‘국가대표’들의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리커브 남자 일반부에는 ‘세계 최강자’ 김우진(청주시청), 2023년 챔피언 이우석(코오롱), 광주 세계선수권 개인전 동메달리스트 김제덕(예천군청)이 출전한다.



1일 광주에서 개막하는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에서 선보일 양궁 슈팅 로봇.

〈대한양궁협회 제공〉

리커브 여자 일반부에서는 안산(광주은행)과 강채영(현대모비스)의 맞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2024 파리올림픽 3관왕 임시현(한국체대)은 리커브 여자 대학부 무대에 선다.

2028 LA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컴파운드에서도 스타 선수들이 출전한다.

남자부에는 최용화·김종호(이상 현대제철), 최은규(울산남구청)가 여자부에는 소채원(현대모비스), 심수인(창원시청), 한승연(한국체대) 등이

나서 우승을 겨룬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개발한 ‘양궁 슈팅 로봇’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대일 이벤트 매치도 마련된다.

센서를 통해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분석하고, 발사각을 정밀하게 조정해 화살을 쏘는 로봇은 그동안 대표팀 훈련 파트너로 활용되어 온 만큼 관중들에게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안병훈·김주형, PGA 시드 확보 ‘사투’

두 번째 가을 시리즈 샌더스 팜스 챔피언십 3일 개막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가을 시리즈 두 번째 대회인 샌더스 팜스 챔피언십(총상금 600만 달러)이 3일(한국시간)부터 6일까지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 더 컨트리클럽(파72·7461야드)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엔 안병훈과 김주형이 출전해 사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병훈은 페덱스 컵 포인트 600점으로 페덱스컵 순위 73위를 달린다. 60위인 캐나다의 매켄지 휴스(813점·캐나다)와는 213점 차다.

김주형은 428점으로 99위까지 밀렸다. 현재 101위는 미국의 앤드루 퍼트넘(423점)으로, 김주형과 격차는 불과 5점이다.

안병훈과 김주형은 모두 가을 시리즈 첫 대회인 프로코어 챔피언십에서 저조한 성적을 냈다.

안병훈은 공동 57위에 그쳤고, 김주형은 첫 탈락하지 않은 72명의 선수 중 최하위인 72위를 기록했다. 두 선수 모두 이번 대회를 통해 반전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가을 시리즈는 다음 시즌 PGA 투어 출전권 확

보를 위한 사투의 장이다.

가을 시리즈까지 치른 뒤 페덱스컵 순위 100위 안에 들어야 내년에도 PGA 투어에서 뛸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경쟁이 펼쳐진다.

PGA 투어는 지난 8월에 열린 투어 챔피언십까지 페덱스컵 순위 50위 이내 선수들에게 내년 시즌 출전권과 주요 대회인 시그니처 대회 출전 자격을 부여했다.

투어 챔피언십 종료 시점 기준 50위 이내의 선수들은 딱히 가을 시리즈에 출전할 필요가 없다.

반면 51위부터 70위까지의 선수들은 내년 시즌 초반에 열리는 시그니처 대회, AT&T 페블비치 프로암 대회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 출전권을 노린다.

두 대회 출전권은 가을 시리즈 종료 기준 60위까지 주어진다.

올해 가을 시리즈는 이달 초에 열린 프로코어 챔피언십부터 11월에 열리는 RSM 클래식까지 총 7개 대회로 펼쳐진다.



안병훈

샌더스 팜스 챔피언십엔 안병훈과 김주형을 포함해 총 132명이 출전한다.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라스무스 호이고르(덴마크)다.

그는 최근 라이더컵에 출전해 유럽 대표팀이 13년 만의 원정 우승을 차지하는 데 힘을 보탰다.

지난 4월 코랄레스 폰타카나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개릭 히고(남아공), 디펜드 챔피언인 케빈 위(대만)도 우승 후보로 꼽힌다.

지난 3월 텍사스 칠드런스 휴스턴오픈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호주 교포 이민우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민우는 여자골프 세계 랭킹 4위 이민지(호주)의 동생이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의 오선우가 올 시즌 풀타임을 뛰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 내년 시즌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무기력 페퍼스, 외인 뛰면 달라질까

여자 프로배구, 기업은행-도로공사 ‘양강’ 구도 예상

지난 28일 IBK기업은행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여수·NH농협 프로배구대회(컵대회)는 다음 달 18일 개막하는 2025~2026시즌 V리그의 시험 무대였다.

외국인 거포와 아시아쿼터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아 각 구단의 전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웠지만 여자부 결승 대결을 벌인 IBK기업은행과 한국도로공사가 특히 주목받았다.

기업은행은 결승에서 도로공사에 세트 점수 3-1 역전승을 거두고 지난 2016년 이후 9년 만에 컵대회 정상을 탈환했다.

컵대회에서 결승 대결을 벌인 기업은행과 도로공사가 새 시즌 V리그에서도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지난 2024~2025시즌 4위로 밀려 ‘봄 배구’에 나서지 못했던 기업은행은 도로공사에서 현금 트레이드로 영입한 ‘최리’ (최고 리베로) 임명옥의 영입 효과를 톡톡히 봤다.

39세의 나이에도 지난 시즌 수비 1위(세트당 7.326개)와 디그 1위(세트당 5.113개), 리시브 효율 1위(50.57%)로 활약했던 임명옥이 가세하면서 수비가 안정되는 한편 공격까지 당달아 살 아난 것.

안정적인 리시브 덕에 김하경-최연진-박은서 3인 체제인 세터진의 부담이 줄었고, 아웃사이드 히터 육서영은 물론 최정민과 이주아가 포진한 중앙 공격도 탄력이 붙었다.

준우승을 차지한 도로공사도 쌍포 강소휘와 김세인을 앞세워 지난 27일 준결승에서 ‘우승 후보’ GS칼텍스에 세트 점수 3-1 역전승을 거두는

등 만만찮은 전력을 과시했다.

지난 시즌 각각 4위와 5위로 밀렸던 기업은행과 도로공사는 외국인 선수와 아시아쿼터 자원도 다른 구단에 비해 손색이 없다.

기업은행은 지난 시즌 득점 부문 2위(910점)에 오른 빅토리아 덴착(등록명 빅토리아)과 재계약했고, 아시아쿼터 알리사 킨켈라도 왼쪽 날개에서 힘을 보탠다.

도로공사도 V리그에서 기량이 검증된 ‘외국인 거포’ 레티치야 모마 바소코(등록명 모마)를 외국인 드래프트에서 지명했고, 태극 대표로 활약한 타나차는 변함없는 공격력을 뽐낸다.

아울러 지난 시즌 득점 1위에 오른 ‘쿠바 특급’ 지젤 실바(등록명 실바)가 건재한 GS칼텍스도 3강편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지난 시즌 봄 배구에 나섰던 흥국생명파 현대건설, 정관장은 전력 약화 요인이 생겼다.

통합우승을 달성했던 흥국생명은 ‘배구 여제’ 김연경의 은퇴 공백이 크다. 현대건설은 모마와 이다현의 이적 공백에다가 카리 가이스버거(등록명 카리)와 정지은, 양효진이 부상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

챔피언에 올랐던 정관장 역시 반야 부키리지(등록명 부키리지)와 매가왓티 퍼티위(등록명 메가)가 이적하면서 공격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지난 시즌 최하위에 그쳤던 페퍼저축은행은 외국인 드래프트 때 사실상 1순위로 뽑은 조이 웨더링턴(등록명 조이)이 파워 넘치는 공격력을 자랑하지만, 토종 선수들로만 치른 컵대회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